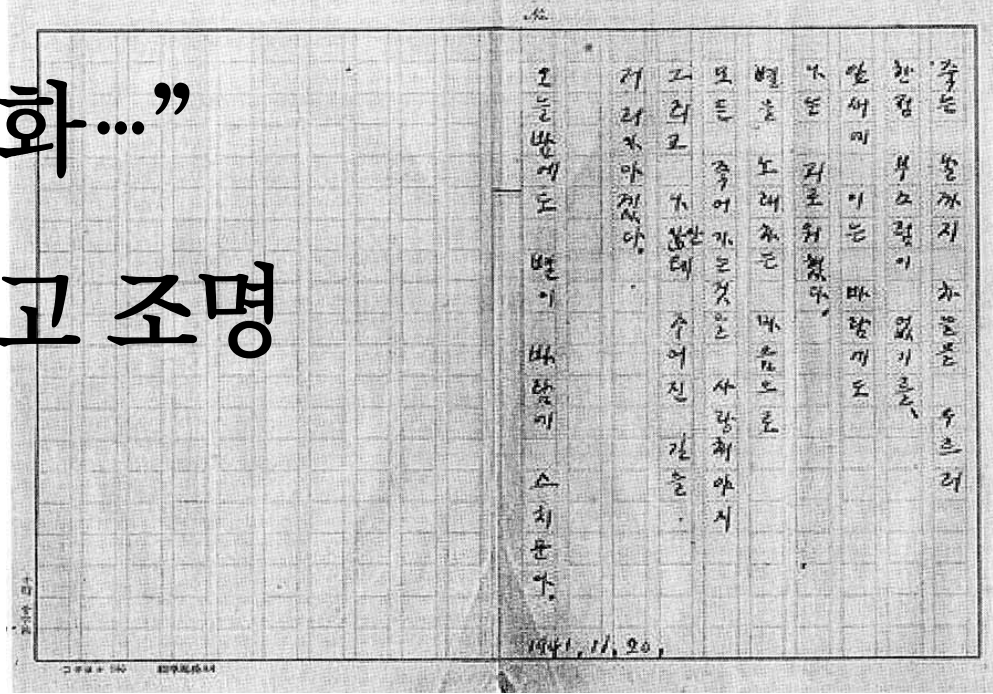


“부끄러움 형상화...” 윤동주 친필 원고 조명

계간지 '시산맥' 기획연재
서시·눈오는 지도 등 4편
문학적 삶 연구 중요 자료



‘서시’ 육필 원고. 출처 ‘사진으로 읽는 하늘과 바람과 별’(스타로고)

“시인은 여기서 ‘序’를 ‘詩’로 쓴다. 序를 산문으로 쓰는 일반적 관행에 비해 흔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한 것을 보아서, 성실한 ‘학생’ 윤동주의 면모와 시인의 남다른 안목이 확인된다. 그렇다. 시인은 사실 윤동주는 이미 시인으로서는 학생으로서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거러”와서 하늘의 송고한 별을 발견하고 이렇게 ‘별의 시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성 ‘윤동주 시 연구’)



윤동주의 ‘서시’, ‘눈오는 지도’, ‘자화상’, ‘소년’은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이들 작품은 친필 원고 형태로 남아 있는 시이기도 하다. 윤동주의 친필 원고는 현대 시문학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시인의 문학적 생애를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이기도 하다.

광주일보와 함께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는 계간 ‘시산맥’(가을호·31)에서 기획연재로 ‘윤동주 시인 자전적 시고’를 다뤘다.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매개로 조명하는 취지다.

김지성 한양대 교수는 ‘서시’에 대해 “‘서시’는 단순한 날개의 작품이 아니라 시집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작품이 응축된 채 유기적 의미를 형성한 ‘하늘

과 바람과 별과 詩’ 그 자체’로 인식되고 통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눈오는 날 떠나버린 순이(順伊)를 모티브로 한 시 ‘눈오는 地圖’는 화자의 슬픔과 함박눈의 풍경이 절묘하게 중첩된 작품이다. 시에는 체합을 매개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이진경 평론가는 ‘눈오는 地圖’에 대해 “‘지도’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도가 아닌 ‘지도’를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담긴 랜드마크, 통로, 지구, 환경 등을 보여주는 심상지도(mental map)”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흙흙이 떠나간 순이를 ‘잃어버린 역사’로 비유한 것은 개인적 체험을 유구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역사적 사건으로 확대시킨” 것인 반면 “개인과 역사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 연대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흐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로 시작되는 ‘자화상’을 반(反) 나르시스의 우물로 평가한 전철희 평론가의 글도 눈에 띈다. 전 평론가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 즉 “그의 시가 나름의 미덕을 지녔어도 순수하게 예술적 가치만 따지면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작품의 중심에는 자기혐오와 자기연민 사이에서 부유하는 시인의 고독이 드러나 있다. 우물과

달, 구름과 하늘, 바람과 가을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은 그 앞과 뒤에 스치듯 지나갈 뿐이다.”

이어 전 평론가는 “쉽게 쓰여진 시’를 부끄러워했던 윤동주는 시인에 미달되거나 혹은 그것을 초월한 존재였다고 해야 한다”면서 “‘자화상’은 ‘궁핍한 시대’에 고민과 반성을 거듭했던 청년의 형상이 새겨진 작품으로 읽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읽힐 것”이라고 밝혔다.

‘少年’이라는 시는 윤동주의 여러 심성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시로, 윤동주의 순수한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중략) 손끝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속에는 사람처럼 슬픈얼굴-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차성환 평론가는 “‘하늘’ ‘손바닥’은 곧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인 ‘거울’ 또는 우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시는 사랑의 대상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한다.

한편 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총평에서 “윤동주는 이 치열하고도 충실한 그리고 정직한 자기 응시와 자기 압박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게 보여준, 그래서 자기 확인이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성실한 내적 변증을 이루면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가”라고 분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기호 소설가 ‘황순원문학상’ 수상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이기호(사진)의 소설이 황순원문학상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이기호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제17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한정희와 나’.

2017년 계간 ‘문화와사회’봄호에 게재된 소설 ‘한정희와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초등학생 한정희와 소설 속의 작가인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설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이야기이다.

심사위원들은 “한정희에 대한 이해의 실패와 그런 실패를 소설로 쓸 수 없는 문학적 실패를 이점으로 경험하는 소설 속 소설가의 윤리적 균형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기호 작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하게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어떤 소설을 쓰겠다는 목표나 계획보다는 꾸준히 독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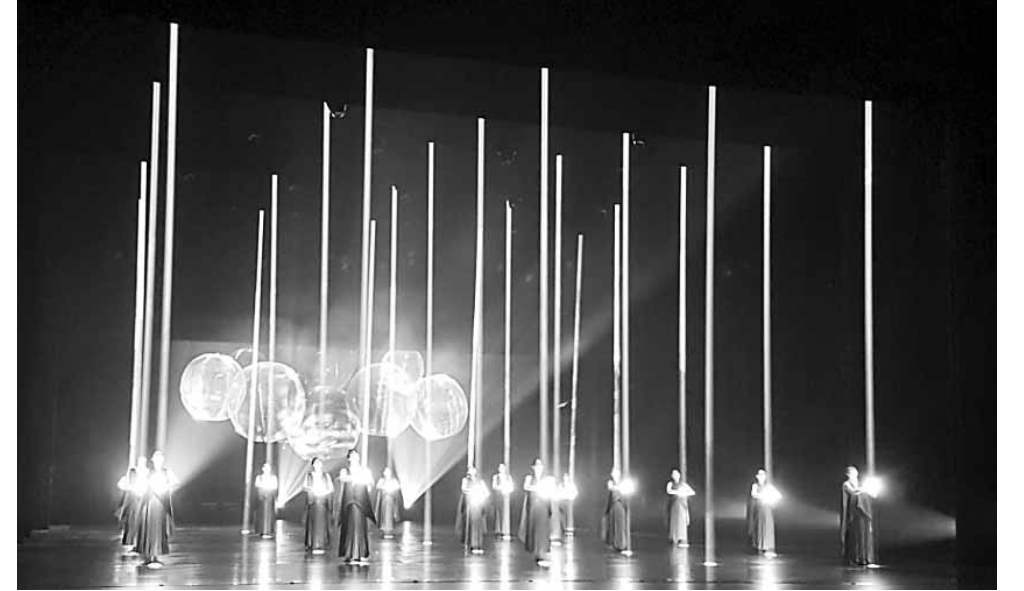
지난 2008년부터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



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수는 1999년 단편소설 ‘버니’로 등단했다.

소설집 ‘최순덕 성령총만기’,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 가족소설 ‘세 살 버릇 여덟까지 간다’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효석문학상, 김승옥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대표 이연정무용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연기상·무대예술상 수상도
광주 무용단체 10번째 쾌거

이연정무용단의 ‘카디날의 겹’이 제26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지역 무용단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 이연정 무용단이 단체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개인상으로는 연기상(이혜준)과 무대예술상(무대미술 유승룡, 조명 김철희)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카디날의 겹’은 ‘카디날 피시’라는 수컷물고기를 통해 부성애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카디날 피시’는 수컷된 수컷 개의 알을 입 안에 넣고 3개월여간 치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까지 보살피는 수컷 물고기다. 무용수들은 카디날피시

라는 물고기를 통해 수많은 인과와 필연의 연결고리 ‘겹’에 대한 출발과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조명한다.

안무가 이연정은 광주예고와 세종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광주무용협회 이사, 이연정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이다.

(사한국무용 광주광역시지회는(지회장 이영애) 이로써 현재까지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 10회, 금상 6회, 은상 6회 등 총 21회 수상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은상, 2015년에는 금상, 연기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노윤정이 안무상을, 구윤지가 연기상을, 유승룡이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제26회 전국무용제는 울산에서 열린 전국무용제로, 전국 16개 시·도의 무용단이 참여해 경연 무대를 펼쳤다. 무용제 기간 동안 아와공연 및 나인댄싱, 명인명무전,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등도 진행됐다. /전문재기자 e16621@

문명란 2주기 추모제

오늘 국립5·18묘지

문명란 시인의 2주기 추모제가 25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화묘장에서 열린다.

민족시인문명란선생 2주기 추모위원회(대표·이명환)가 주관하는 이번 추모제는 고인의 삶과 문학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공육동 시인 사회로 진행되는 추모제는 황일봉 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 문명란 선생 연보 발표, 이명환 추모위원회 대표의 추모사가 진행된다.

이어 서은문화회 소속 시인들이 고인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김숙희 시인이 ‘인연서설’을 낭송하고, 강숙자 시인과 홍영숙 시인은 각각 ‘내게 길을 묻는 사랑이여’, ‘불혹의 연가’를 낭송한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을 대표해 문천기 씨가 인사를 전하고, 황일봉 이사장이 감사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문의 010-3601-158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회의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오후 2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 2차 자문회의를 열고 광주문화재단 경영3기(2017~2020) 창의도시 사업운영 중기계획을 검토하고 세부 사업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광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도시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김이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남희(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본부장), 박순보(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소장),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이남(미디어아트 작가), 전진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62-670-749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